| | | |
|---|---|---|
| | **보 도 자 료** | |
| | 작성 | 대외협력·지식자산팀 |
| | 배포 | 대외협력·지식자산팀(044-960-0438) |
| 보도일시 | 즉시보도가능 | |

# 국토연구원, 개원 48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

- 10월 1일(목) 기념식 개최…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 다짐 -

□ **국토연구원(원장 임재만)은 10월 1일(목) 개원 48주년을 맞아**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**기념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**했다. **국토연구원**은 **1978년 개원** 이후 **국가의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**으로서 국토·지역 발전, 도시·주택, 교통·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.

□ 이날 **오전 11시** 국토연구원 강당과 4층 중정에서 열린 **기념식**에는 임재만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. 기념식에서는 임재만 원장의 기념사와 국토 분야 원로전문가 모임인 이정식 국연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.

□ **오후 2시**부터는 **「국가균형성장과 주거안정: 현장 중심의 실용적 국토정책」**을 주제로 **개원 48주년 기념세미나**가 열렸다. 세미나에서는 **▲「국가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별 거점도시권 육성방안」**(윤영모 균형성장지원센터장), **▲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」**(전성제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) 등 두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.

○ 김천일 강남대학교 교수,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, 이익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,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, 최종훈 선임기자 등이 참여해 국가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.

□ 토론을 마무리하며 **임재만 국토연구원장**은 **국가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바라보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강조**했다.

○ 임재만 원장은 “국토의 균형성장이 주택시장 안정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, 향후 균형성장과 주택정비사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특히 “국토연구원 내 도시재생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주택정비사업, 재개발·재건축 및 복합사업 등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,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설명했다.

□ **강현수 전 국토연구원장**은 토론 총평에서 **“주택은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”**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 최근 몇 년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했다.

○ 특히 “국토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정책과 실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간극이 존재”한다며, “앞으로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의 메커니즘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”했다.

□ **국토연구원**은 개원 48주년을 계기로 **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**하고, **연구성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의 실행력과 정책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**이다. 또한 국토연구원은 **2028년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50년의 국토정책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**하고, 국민·청년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**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갈 예정**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
대외협력·지식자산팀(☎ 044-960-0438)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** **행사사진**




▲ 국토연구원 개원 48주년 기념 세미나(10월1일) 단체사진, 세종 국토연구원 강당




▲ 국토연구원 개원 48주년 기념 세미나(10월1일) 단체사진, 세종 국토연구원 강당